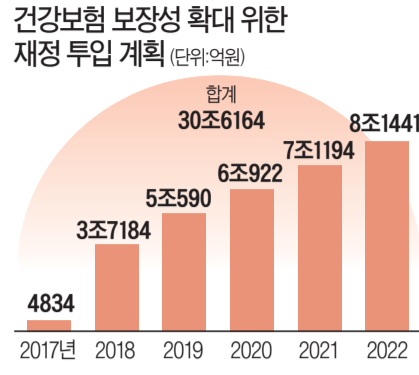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건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30조6000억원 조달 방안으로 건보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국고 지원 및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찬반 의견은 갈린다. 찬성 측은 지급처럼 병원이 비급여 수입에 매진하게 하는 것은 의료 공급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소진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추가 투입 31조 건보재정 부담 안돼 비급여 남용 줄면 전체 의료비 감소



건보 흑자 소진... 보험료 인상 불가피 재정 절감만을 위한 축소 진료 우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환자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 방안을 많이 포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필수 의료'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밝혔다는 점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행정학회 부회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포기할 때만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비급여 남용을 줄이면 전체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은 건강보험만이 아니다.

이번 개혁안은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 부담은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수입이 줄고, 신기술 개발 의욕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5년간 30조6000억원이 드는 이번 정책을 수행하려면 기존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소진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정부는 재정 절감 대책으로 더 이상의 비급여를 막기 위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관행 수가 인하나 목적이다. 환자 부담이 90%인 예비급여는 급여화가 됐다고 볼 수도 없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의료자원의 적정한 분배도 어려워진다. 환자는 경증 질환이어도 특수 고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산부인과 전문의 △대한임상보혈학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런 환경에서 소극적 진료를 하면 민원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에 따라 상급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과 업무 중압감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급여 수입만으로 병원 정상경영 가능토록 조정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은 21조원이다. 그리고 흑자 기조에 있다. 21조원도 지난 5년 새 쌓인 것이다.

환자 부담을 줄이면 '의료쇼핑'이 만연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럴 수 있다.

전체 의료비 규모가 폭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전체 의료비 증가 속도는 지금보다 둔화된다.

찬성 포인트

- ▶ 추가 투입 31조원은 건강보험 몸집의 10분의 1도 안 돼
- ▶ 높은 본인 부담료 내면서 의료 남용하기 어려울 것
- ▶ 비급여 남용 줄이면 전체 의료비 부담 줄어
- ▶ 병원이 비급여 수입에 매진하면 의료 왜곡 가져와

건강보험제도 지속 가능하게 할 장기 정책 필요

반대 포인트

- ▶ 건강보험 누적흑자 소진과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 ▶ 의료의 질 떨어질 수도-환자는 축소 진료 받을 수밖에
- ▶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 자원의 분배 왜곡
- ▶ 무상 의료 내세웠던 공산주의 국가, 국민 건강 망가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실손보험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상 의료료를 내세웠던 공산주의 국가들 예전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국민 건강이 먼저 망가졌다.

도요타의 원가기획이 뭐길래... 총체적 리스크 탈출 해법 세미나

9월 7일 15시~17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도요타의 강점인 '원가기획'에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가기획은 이익창출을 위한 도요타의 핵심으로 최초 설계부터 양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

를 창출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정 부서가 아닌 전직원이 함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시켜서 하는 업무는 일이 아니다

도요타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개념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있는 행동'이다. '상사가 지시한 대로만', '기존 방식을 의심하지 않고 관행대로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윤리키리 도시오 지음 현대차 글로벌연구소 옮김 값 15,000원

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나아가 '회의에서 플러스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습관처럼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도요타의 원가기획 세미나 일정

- ▶ 대상: 전 업종, CEO, 임원, 팀장, HR, 기획, 재정, 원가, 설계, 생산, 품질 담당
- ▶ 일정: 9월 7일(목) 15시~17시
- ▶ 세부 일정: 14:30~15:00 참가자 접수, 15:00~15:05 사회자(김기진 소장, 엑스퍼트컨설팅), 15:05~15:25 오프닝 강연(최순철 사장, 세종공업), 15:25~16:45 주제 강연(구지욱 대표, 한국도요타엔지니어링), 16:45~17:00 질의&응답(사회자)
- ▶ 장소: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
- ▶ 신청 방법: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김기진 소장) (필수 입력: 소속, 부서, 이름, 이메일, 핸드폰 번호)
- ▶ 신청 문의 및 확인: 엑스퍼트컨설팅 김기진 소장(010-5579-1238/art\_hr@naver.com)
- ▶ 참가비: 사전입금 2만원/1인(현장접수 2만5천원/1인) (참가시 '도요타의 원가' 도서 증정)
-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80-940620 (주)엑스퍼트컨설팅

- ▶ 주관: 엑스퍼트컨설팅, 한국경제신문BP
- ▶ 후원: 한국도요타엔지니어링